

과잉의 눈동자

辛 正 一

〈유일농원 영업부장〉

● PL도입 한몫.

천호부회장과 한일농원이 네델란드와 이스라엘로부터 작년9월과 10월에 각각 순계(Pure Line)를 도입한 이후 이제 만 1년이 되었다. 천호부회장과 한일농원이 순계를 도입하게 됨으로서 기존의 국내 육종회사인 한협가금육종농장과 더불어 국가기관인 국립종축장을 제외하고 민간 단체로서는 육종사업을 할 수있는 기초계를 보유한 순계보유 3개회사(이하 “PL3社”라 칭함)가 된 셈이다.

세계도처에 흩어져 있던 여러 수십종의 품종들이 70年代 초반까지 무제한으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서 난무하다가 생산과잉과 경기의 불황으로 도태 혹은 정리되었었고 73年末의 종계수입금지 조치이후 산란계와 육용계를 합하여 대개10여종의 계통으로 축소되었었다.

종계수입금지조치의 직접적인 명분은 병아리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양계업계의 불황방지와 국내육종사업의 보호육성이라는 2개事項이었으며, 이외에 간접적인 원인으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 경제계의 지상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던 “외화절약”이라는 문제와 이와 관련되어 수입곡물사료소비의 사업인 양계업에 대한 정책적인 냉대등도 은연중에 많은 작용을 했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석유파동으로 인한 73~74년의 경제 대공황은 특히 축산업계를 더욱 두들겨댔으며, 74년 후반기부터 업계가 정돈되기 시작하여 7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간 국내 경제활동의 발전과 더불어 양계업계도 즐거운 호황을 누려왔다.

종계수입금지조치이후 닭 경제능력검정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 계통에 혜택을 줄수있다는 명분으로 75년 8월에 하바드(Hubbard 663)원종계(GPS)가 도입되었고 금지조치 전에 수입되어진 일부품종들이 몇번의 강제환우를 거치면서 국내에서 육종된 한협계통과 함께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이다.

76년도 대한양계협회를 통하여 농수산부에 제출한 업계의 종계수입건의에 대한 당국의 답변으로 “국립종축장과 한협가금육종 농장등이 국내에서 필요한 종계(PS)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종계수입은 필요없으며 다만 상업용이 아닌 국내가금육종목적으로 수입한다면 순계(PL)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는 회답의 결

과로 이에 재빨리 대응한 천호부화장과 한일농원이 모두 합하여 각각 약 1,000여수씩의 순계를 수입하게 되었으며, 당국은 국내육종사업의 보호육성이라는 애당초 종계수입금지조치의 목적을 다시한번 재천명케 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순계도입 2개사가 순계수입서류를 제출할 때 몇가지 사항을 규제한 각서가 포함되었으며, 이 각서내용中에는 수입될 순계는 상업용이 아닌 육종용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에서 생산되는 계통은 협회의 능력검정에서 그 능력이 검토된 후에 시판할 것이며, 시판時에도 계통의 명칭은 수입회사의 상품명인 아닌 새로이 국내에서 육종된 신품종의 명칭을 사용할 것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각서내용이 매우 많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어쨌든, 이제-, 수입계통의 생명이 거의 다하고 한협가금육종농장에서 국내종제공급능력과 계통의 능력을 장담하고 있으며 국립종축장에서 육종중인 축시계통도 그 능력면에서 자부하고 있는 지금, 순계가 도입된지 한몫을 맞이하게 된것이다.

● 動(움직임)

가장 큰 두가지의 움직임은 PL3社를 제외한 일부 부화업자들의 종계수입건의와 순계도입 2개사의 종계(PS) 판매움직임등이며, 이와 관련되어 협회와 축산언론계 혹은 일반 양계업자들의 비상한 관심 등이다.

수입종계로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여 오던 PL3社이외의 굵직한 부화장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통을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계통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혀 PL3社에 대항하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양계협회에 매우 협조적(協助的:반드시 이를 의식한 협조라고는 할 수 없지만)으로 행동하고 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영향력있는 업계의 여러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등 그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이들의 주장은 종계를 다시 수입해야 한다는 이유로서 능력의 차이, 불량추 생산, 독점기업의 횡포등을 들고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설득력있는 이유로서 능력의 차이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또한 도입된 PL과 PL도입사의 판매 방침에 공격을 하고 있다.

현대양계 77년 8월號(이하 8월호라 칭함)의 종계도입재개에 대한 좌담회에서 이창열씨는 “순계는 국제상표로 보아 절대로 주지 아니한다.”면서 도입된 순계가 PL이 아니라는 점을 은연중에 시사했으며, 또한 최민용씨는 도입된순계는 PL이 아니라 원원종계(GGPS)라고 못박으면서 PL에서 생산된 계통은 능력검정의 인정을 받아야 판매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同 좌담회에서 이상윤씨도 수입서류의 각서내용을 중요시 하면서 수입된 PL은 육종용이지 상업용이 아니며 이에서 생산된 계통이 능력검정을 거친 후 판매되는등의 각서이행에 대한 결과

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수입재개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생산과잉소지에 대한 이들의 답변은 “현재의 양계업은 대개가 기업화되고 많은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 양계인들의 자제력과 선별력이 향상되어 과잉의 염려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 × ×

PL도입 2개회사는 78년도 초부터 정확히는 1월~2월부터 수입된 PL에서 생산된 종계(PS)를 분양할 방침으로 있다고 한다.

종계가 병아리에서부터 성장하여 다시 병아리를 생산하기까지의 기간을 8개월로 잡는다. 76년 9월에 수입된 순계가 종계(PS)를 생산하기까지의 기간은 2세대 즉 16개월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76년 10월부터 16개월은 78년 1월까지가 된다. 수입된 순계가 바로 종계(PL)를 생산하기 위하여 직행하였을 때 PL도입2개사의 분양시기는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계수입재개를 주장하는 수입세력은 수입된 순계가 PL이 아니며 원원종계(GGPS)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순계수입에 대한 각서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76년도에 수입된 순계가 과연 PL이나, 아니면 GGPS이나하는 문제는 자꾸 거론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수입서류에 분명히 PL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서류와 행위를 믿어야 한다. 만약 수입된 순계가 PL이 아니고, GGPS이라면 이들 PL도입 2개사는 국가를 기만한 사태 즉 밀수가 되기 때문에 합부로 논의할 성질의 사항이 못된다.

말썽많은 PL과 GGPS의 차이점에 대하여 짚고 넘어 간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있다. GGPS(원원종계)는 원종계(GP S)만을 생산할 수 있으며 교배를 통한 확대재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종을 위한 기초계가 될 수 없으나, 순계(Pure Line)는 육종을 위한 기초계로서 확대재생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원종계(GPS)도 생산할 수 있는 소계(素鷄)라고 인식되고 있다.

PL도입 2개사가 78년초부터 종계(PS)를 분양할 방침이라는 사항은 분명히 일단 저항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일이며, 종계수입재개세력이 각서이행에 대한 촉구를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든 아니든간에 타당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대한양계협회나 당국은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받고, 도입PL에 대한 목적이 육종용이었다면 그 각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협회나 당국은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도 없으며 당연히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PL도입사측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넘어서 때때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냄으로서 그들의 조급한 심정을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업계와 학계의 중지를 모아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는 협회의 종계심사 위원회라든가 닭 경제능력

검정위원회등을 부인 내지는 회의감을 표시하므로써 거취할 위치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에서 볼 때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며, 함께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가 시기에 알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같이 참여하여 정당한 이유로서 개선해 갈 수 있는 당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인에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진다는 것이다.

× × × × ×

각서이행과 종계 판매방침과 종계수입재개의 움직임과—, 현실은 이론과 분리되어 있을 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해야 양계인들은 사업의 방침을 세우는데 적절한 참고사항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것이다.

● 협회와 당국.

종계수입재개세력은 협회내에서도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세는 경기에 있어서 쫓기는 입장이 아니라 쫓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맹렬하다. 협회의 집행부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금의 실수만 하더라도 한쪽을 편애하는 편파적이라고 추궁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협회는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혹시나 한쪽으로 치우쳐 지지 않나하면서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협회의 이사회에서는 종계수입재개에 대한 건의를 당국에 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면서도 집행부가 아직 건의서를 당국에 제출치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업계의 눈치를 보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종계수입건의서는 제출될 것이고 또한 제출함이 협회의 집행부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협회가 종계수입건의서를 당국에 제출하는 문제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대개 두가지 면(面)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원칙적인 면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같은 회원인 부화인도 보호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생산자 즉 양계인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협회가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양계인의 권익보호하는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은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협회가 종계수입건의서를 제출할때는 이것이 양계인을 보호하는 것인가 혹은 해롭게 하는 것인가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종계수입이 다시 이루어 졌을 때 양계업체는 어떻게 될까?

종계수입재개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품종의 능력이 우수하다면 같은 수량의 병아리로서 같은 경비를 들여서 더욱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양계인에게는 이익이 된다. 하지만 만약 생산과잉이 되어 업계가 불황이 온다면 이는 진실로 더 큰 손해를 가져 오기가 쉽다.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가능성을 검토해보면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은 대개 인정하는 편이 많을 것이며, 생산과잉의 염려 또한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편이 많을 것이다. 더우기 만약 78년 초부터 PL도입사가 종계(PS)를 판매한다고 한다면 이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생산과잉의 여지는 충분하다.

다음, 원칙적인 면의 두번째 사항이다. 협회정도이면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 즉 국내육종사업의 육성이라는 방침을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 육종사업이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므로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여 시장의 경기상황에 관계가 없게끔 해 주어야 좋으나 현재의 우리나라 여건으로는 아직 바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종회사는 국내 양계경기에 그 사활이 달려 있는 것이다.

종계수입재개로 생산과잉이 되어 업계가 불황으로 들어 간다면 국내육종사업육성에 보탬은 되지 못하리라.

위와같은 원칙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협회는 종계수입건의서 제출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아니면 제출하더라도 생산과잉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매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현실적인 면이다.

협회는 현재 국내육종계통을 두둔한다는 인상을 일반에게, 더우기 수입재개세력에게 다분히 풍기고 있다. 만약 수입건의서를 끝까지 제출치 아니할 경우 강력한 수입세력의 바람을 한 몸으로 모두 감당해 내어야 한다. PL보유 3사에 대한 과잉보호라는 인식과 함께 수입세력의 영원한 원망을 들어야 한다. 현실적인 면에서는 수입세력 또한 회원이기 때문에 뚜렷한 명분이 없다면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종계수입건의서를 당국에 제출하게 되면 일단 결정권이 당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태풍의 바람은 피할 수가 있다. 76년 말 현집행부가 협회의 업무를 인수하면서 본 임기동안의 가장 큰 임무가 바로 종계문제라고 예상되었듯이 현재와 같은 입장에서는 어떠한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수입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바람을 피하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

종계수입건의서를 받아 권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계수입금지조치의 원칙적인 방침을 따르면 종계수입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업계에서 협회를 통하여 “PL도입사측에서는 아직 종계분양이 되지 아니하며 적어도 산란계에 있어서만은 아직 국산계를 완전 믿을 수 없으니 78년도의 산란용 종계가 부족한 형편이므로 수입재개를 허락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재고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만약 PL도입사측이 78년초부터 종계를 분양하게 되고 한협계가 분양되는 상태에 또다시 외국계가 수입된다면 생산과잉은 명약관화한 일, 이에 대한 책임은 수입을 허락해 준 당국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므로 당국으로서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수입을 해주지 아니하였는데 업계가 과잉이 되어 불황이 온다면 여러가지 문책을 협회와 업계에 할 수 있지만 수입을 허가해 준 뒤 바람직한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당국은 꿀먹은 벼어리가 될 것이다.

협회가 바람을 피하는 길은 건의서를 제출하는 길이며, 그렇게 되면 당국의 의사가 또한 뼈저거리게 되는 관계, 그러므로 협회와 당국이 충분히 숙의하여 해결의 길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육용종계 100만수

각서이행에 대한 강력한 관심이 있지만 PL도입사육의 종계분양은 이루어 질것인가? 현실적으로 이는 가능하며 필자의 생각에도 분명히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된다.

비록 부화업 허가제와 종계업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다하더라도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직접적이고 충분한 구속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는 궁금하다.

한협가금육종농장과 PL도입사육이 78년부터 경쟁적으로 종계를 분양하게 될 때 육용종계의 경우 100만수까지 가능하다. 산란종계의 경우는 육계와 좀 다르다. 산란종계는 아무리 많이 분양되어도 산란업계의 수용능력이 육용업계보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부화업계에만 불황이 오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그러나 육용업계는 병아리 생산물량이 바로 육계생산물량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육용종계의 과잉분양은 육용업계의 불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의 수량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양계 8月号에서 한협의 박도현사장은 78년의 종계 생산예정으로 백색산란계 20만수, 갈색산란계 30만수, 육용계가 50만수이며 이는 우리나라 현재 종계수요수량의 전체라고 하였다. PL도입사육에서 육용종계분양수수율을 줄잡아 25만수씩 즉 50만수를 생각한다면 78년의 육용종계 분양수수감 100만수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육용종계의 적정수수를 50만수로 생각할 때 100만수라는 것은 아무래도 과잉이다. 이의 분양수수를 업계의 포용력을 감안하여 가장 실질적으로 생각한다면 70만수는 되리라. 최민용씨가 上同 좌담회에서 원종계 농장에서는 상업용 초생추(CC)를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PL도입사육은 현재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의 CC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CC분양방침을 세우고 있어 생산된 종계가 판매되지 아니할 때는 自社 확보用으로 한다면 생산된 종계는 곧 분양된 종계로서 그 수량이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76년도에 분양된 육용종계를 47만수로 추정했을 때 年度別 육용초생추 생산현황을 비교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을 볼 때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76년 10월경부터 전국을 휩쓸기 시작하여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뉴켓슬의 피해(종계및 육계)로 77년도에 생산될 초생추의 수량이 예정보다 훨씬 적으리라는 것이다. 필자의 추정으로는 뉴켓슬 피해로 인한 감수가 약 30%는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되어진다.

육용종계 47만수의 생산량이 이 정도일 때 70~100만수의 종계가 병아리를 생산하게 될 79년의 육용업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표1) 년도별 肉用초생추 출하수수 비교 (단위: 만수)

년도별 항 목	73년	74	75	76	77
1	141	68	119	148	270
2	111	21	150	183	391
3	126	153	196	241	488
4	232	175	248	277	566
5	252	199	279	311	591
6	267	193	235	250	559
7	233	198	221	257	498
8	201	158	193	186	413
9	155	136	180	144	331
10	126	106	153	120	228
11	114	101	108	115	147
12	82	117	85	180	81
計	2,040	1,625	2,167	2,412	4,563

※ 참고1) 77년 분양수수는 76년도 총
계분양수수를 약47만수로 추
정한 결과임(한협가금육종농
장 제공)

※ 참고2) 77년도 분양수수를 뉴젯슬피
해로 인한 30% 감량을 고려
한다면 그 합계가 4,563만수
에서 약 3,200만수로서 적합
한 신장율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 × × × ×

국내 PL보유 3사가 그들의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서로
가 제휴하여 적절한 물량공급은 할 수 있을 것인가?

시골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14세에 공장에 기술 견습공으로 들어
가서 오늘날 포드신화를 창조한 포드의 기업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
라 사회봉사이며 이윤은 이 봉사의 결과로 자연발생하는 당연결실이
라는 사업철학에 몰입할 수 있다면 PL3사의 제휴는 가능하다. 그러
나 부화업제 어느엘리트의 말대로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는 어떠한 사
향도 관심밖의 일”이라고 하는 경제인의 사회가 되어버린 현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PL3사의 데탕트時代는 90%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워싱턴, 모스크
바, 그리고 북경의 데탕트는 그런대로 가능하다. 국제정치무대의 가
장 기본적인 지침은 실리(實利)이며 自國의 국익과 100% 연관하여 모
든 일의 결과를 매듭짓는다. 이러한 실리의 국제정치기상속에서도 세
계의 3대강국은 그들의 국익과 관련되었다고 판단했기때문에 화해의
여지를 배태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제원칙도 마찬가지로 이윤이 행동
철학의 기초가 되는것이다. 90%이상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PL3사의
방침이 과연 그들의 포괄적인 이익에 부합되는지 혹은 그 반대일런지
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PL3사의 수뇌들은 이렇게 하는 것
이 그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결정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 3대강국의 데탕트와 국내
PL3사의 비효율적인 경쟁자세 中 어느쪽이 더 현명한 것인지!

PL3사의 데탕트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일반 부화업계는 이들의
불협화음이라는 가정을 설정해 놓고 78년의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
여야 할 것이다.

78년의 육용종계 100만수, 이는 분명히 무리이다.

●소망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PL3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 어떠한 큰 노력이 없는한
에는 결과와 앞으로의 추세가 불을 보듯이 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양계인들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다. “78년은 어차피
터어.”라고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또는 영

향력있는 사람들이 더욱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주장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모든 다툼의 원인을 없애는 일이나 어떤 문제해결의 뚜렷한 큰 원칙은 “사양가의 수익증대”이며 이를 위하여 처지가 다른 모든 분야가 균형있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김영옥씨가 월간양계 77년 8월호 권두언에서 이야기 했다.

생산수량의 과소에 근거를 두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양계업계 호불황경기의 주기 3년이라는 기간은 올해 77년으로서 다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1년이 더 계속되어 4년 즉 78년으로서 끝나고 79년부터 과잉의 눈동자가 번득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물론 생산의 과잉이라는 현상이 반드시 업계의 불황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일반사회의 경제경기가 더욱 발전하여 다소 증가되는 축산물의 소비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면 불황보다 오히려 사회가 요구하는 단백질식품을 적절하게 생산공급하는 좋은 결과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도의 차를 넘어설때 반드시 상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과잉으로 인한 불황이라는 비극이 오게 되는 것이다.

수입을 요구하는 세력의 요청, 각서이행의 방침, PL도입사측의 종계분양방침, 여기에 생산자의 보호—이 네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도 노력의 여하에 따라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

우선 당국과 협회측에서는 각서이행으로 PL도입사측에 능력검정을 거치게 한다. 육계의 능력검정은 2개월이면 충분하므로 곧 판매가능하다. 그러나 산란계는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부족되는 1증계는 수입요청하는 부화인에게 그 기간동안 수입을 허가해준다면, 동시에 생산과잉도 피할 수 있는 즉 생산자 보호도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RST는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아 우수한 계통은 거의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으며, 나쁜능력의 계통은 나쁜성적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재 협회의 능력검정사업이 완벽한 시설하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임무는 충분히 수행되어져 왔고 그것으로 공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능력검정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결과밖에 낳지 않는다. —문제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데 있는 것이다. 김영옥씨의 주장인 “사양가의 수익증대”라는 점과 사업의 이윤을 조금씩 서두르지 말고 正道대로 조금 늦게 획득하여도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화여대 총장 김옥길씨는 “사람은 조금씩 서두를때 치사해진다.”라고 항상 일침을 놓고 있다.

어쨌든 필자도 양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일이 감정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긴 안목이 멋진 사업관으로 서로가 화해하여 유익할수 있도록 해결하므로써 업계가 혼란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웃으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단백질 식품을 공급하게 되도록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다.